



추가경정예산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결정된 바 없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길 바랍니다.

<보도내용>

- 2026.3.24. 서울경제는 「전국민에 K패스…月소득 128만원 이하면 지역화폐」, 「지방 사는 차상위계층 100만원 이상 받을 듯…나랏빚 상환 규모도 촉각 [25조 전쟁추경]」 제하의 기사에서,
 - 정부가 2026년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대중교통비 일부를 환급해주는 K-패스 지원 대상에 청소년을 포함하는 등 전국민으로 확대하고, 저소득 취약계층을 선별·집중하여 지역화폐 방식으로 민생지원금을 지급할 예정 이라고 보도하였습니다.

<정부 입장>

- 구체적인 추가경정예산안 내용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 없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담당 부서	기획예산처 예산정책과	책임자	과 장	김정애 (044-214-2330)
		담당자	사무관	박근형 (rmsgukorea@korea.kr)